



남의 떡

나는 남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다. 남매는 이제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수컷 고양이 에이가 얼마 전 심장 기형 판정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사람에게는 고혈압, 협심증,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에 처방되는 약이라고 하는데 에이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양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루약을 습식 사료에 섞어 주는데 이 녀석이 처음 일주일엔 평소처럼 잘 먹었는데 열흘쯤 지나면서 뭔가 눈치를 챘는지 약 탄 사료를 주면 냄새만 몇 번 맡다가 가버리곤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암컷 고양이인 엘이 에이의 밥을 탐낸다는 것이다. 엘은 습식 사료를 먹으면 자주 구토를 해서 요즘에는 건식 사료만 배식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애네들이 자기 밥보다 남의 밥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다. 따르따로 각자의 식기에 사료를 담아 주면 엘은 아예 자기 밥은 본적만 척 눈길도 안 주고 에이 밥그릇 앞에 와서 에이가 먹다가 사라져 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래도 고양이는 제법 교양 있는 동물이라 없어 보이게 남의 밥그릇에 고개부터 들이밀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가 고프 텐데 꼭 그러고 있다. 에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 밥그릇은 먹는 시늉 몇 번 하다가 어느새 엘 밥그릇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예 분리되게 각방에 넣고 먹여도 봤지만 문을 지키고 문이 열리기만 기다릴 뿐 본인 밥그릇에는 관심이 없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고양이나 사람이나 참 비슷하구나 싶다. 원래 사람 심리 또한 상향식이라 가지지 못한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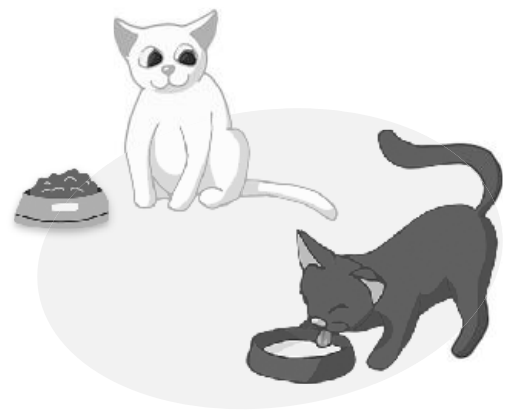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원하지 않던가? 예를 들어 매일 일 안 하고 백수처럼 살 때는 운몸이 부서져라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고 느끼지만 막상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내 떡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남들은 다 뭐해서 돈을 벌길래 저렇게들 잘 살까? 저 높은 빌딩 주인들, 저 돈 많은 재벌들도 과연 더 갖고 싶은 게 있긴 한 걸까 하면서..... 재벌은 애초에 범접 불가한 영역이라 치지만 내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뿐인 것 같다. 나보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며 쓸데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씩씩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뿐이라? 왜 남의 집 애들은 다 그리 잘나고 똑똑한 걸까? 공부 못 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이 있긴 한 걸까? 택시 기다릴 때마다 왜 빈 택시는 반대 방향에서 먼저 나타나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차길 건너면 이젠 또 반대쪽에 빈 택시가..... 뷔페에서는 남편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이 늘 더 맛있어 보이고 운전할 때면 항상 내가 가는 차선보다 옆 차선이 빠른 것 같고..... 하아..... 지긋지긋한 남의 떡.....

그럼 내 떡은?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여수에 와 있다. 이십대 초반에 친구와 둘이 와보고 꼬박 20년 만이다. 그때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가

씨였는데 지금은 토끼 같은 막내가 내 옆에서 짹짹 잘 자고 그 옆에는 하루 종일 대어섯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느라 힘들었을 남편이 푹푹 잘 자고 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지. 거실에는 왜 자기는 침대가 없냐고 툭툭거리던 셋째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건넌방에는 오늘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을 마친 친정엄마와 할머니와 같이 자는 게 신난 딸내미가 누워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 괜찮은 하루였다. 그래, 그리고 보면 늘 남의 떡보다 작은 것 같지만 내 떡도 썩 나쁘진 않다. 맛도 이만하면 떡을 만하다. 그러니 너무 애틍지 말자. 남의 것이 부러울 땐 내 것이 안 보이는 법이니 이제 그만 내 떡이 나 잘 챙기자!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 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러튼 단독 주택 54만불

믿을수 없는 가격의 싱글홀
방 3 화 2 대지 7200 sqft
풀러튼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



아직 마켓에 안나온 풀러튼 코요테 힐스 플랜4 95만불

최고의 학군 안에 있는 풀러튼 코요테 힐스 플랜 4 방 3개 화 3개 2100 sqft



라미라다 싱글홀 단독 주택

라미라다 싱글홀 단독 주택 방 4 화 2 1275 SQFT 대지 5800 sqft



부에나파크 콘도 타운홀 66만불 2006년 방 2개 화 3 1/2 1632 sqft

Founders Walk 위치!! 1층에 방과 욕실, 2층에는 아주 넓고 세련된 주방과 거실, 집안 전체마루, 3층에는 침실 2개와 세탁실, 각 방마다 화장실. 마켓에 오래있지 않을 매물



풀러튼 단층집 869천 방 3 화 2개 1658sqft 대지 9500sqft

많은 과일 나무들을 포함한 많은 최근의 업그레이드들. 모든 침실에는 천장 선풍, 유리 보수도 쉽고 적은 아늑한 뒤뜰, 훌륭한 학교, 이웃



풀러튼 타운홀 725천불 2077sqft 방 3개 화 2개 (아직 마켓에 안나온집)

24시간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페어웨이 빌리지!! 웅장한 거실과, 웅장한 천장, 벽난로, 무성하고 사적인 공동 구역의 인상적인 경치, 초대형 마스터 스위트룸과 전용 발코니, 1층에 침실 2개와 리모델링 욕실, 풀러튼의 중심부 위치.



풀러튼 단독주택 859천불 2442 sqft 방 5개 화 2.5 개 대지 7519 sqft

롤링 힐스 스쿨과 크레이그 파크...2층 - 5 베드룸 플러스 패밀리 룸, 2-1/2 욕실, 2,442 Sq. Ft, 2,419 Sq.ft, RV parking, 충분한 뒷마당공간



풀러튼 단층 단독주택 918천불 방 3 화 2 1936 sqft 대지 8833sqft

풀러튼 최고의 학군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집, 오픈 패밀리 룸, 대형 거실, 디자이너 조명, 천장 팬 및 크라운 몰딩 전체, 멋진 파티오 라구나 호수 근처, 차고 위쪽에 커다란 다락방, 전기 자동차 충전 가능.

풀러튼 타운홀 렌트	풀러튼 타운홀 렌트
방 2개 Den 1개 화 2개 초중고 도보 거리 학군 좋은 곳	방 3 화 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2,700	\$3,150

사업체 매매	뉴포트비치 상가 리스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순수익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피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변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델리 등 발보아섬 근처 *비즈니스 대박 포텐셜 자리 *아주 좋은 리스 조건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